

# 내 마음속의 불교 (상)

변종원 (대전시 서구 내동)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런 생각하잖아 요. 과연 산타 할아버지는 진짜 있을까? 어렸을 때 나는 어느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먹을 것을 주는 교회에 다니며 산타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며 나는 '믿음'을 알게 모르게 마음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절에 다니는 어머니와 종교적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때가 내게 있어 큰 변화의 전환점이었지요. 어머니는 내게 '한 집안에서 하나의 종교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간곡히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에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교회에서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가르쳐주었기 때문에 큰 반발 없이 어머니의 말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종교보다도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쉽지 않았습니. 막상 어머니의 말을 듣기로는 했지만, 그간 어느 하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내게 그것을 버리고, 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 제일 먼저, 주말이 되면 다가오는 허전한 느낌을 한 동안 계속 되었습니다.

마음고생도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 믿음과 어머니에 대한 최승함. 그러다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는 내 마음을 다잡았지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된 일을 하는 어머니. 1년 365일 중 휴일이 없이 일하는 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 음력 초하룻날 절에 가는 정성에 내 스스로 감복을 했습니다. 어렵게 절에 가는 날을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 며칠 전부터 가족들에게 고기와 달걀 등을 삼가게 하시는 모습, 그리고 매일 저녁 지친 몸으로 염주를 돌리며 불경을 조금이나마 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로 하여금 생각을 바꾸지 않을

수 없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누나들의 마음도 돌려놓았습니다. '만약 동생이 대학시험에 떨어지면 너희들 책임이야!' 하면서 일요일에 열심히 교회에 다니던 큰누나를 타일했습니다. 어머니의 무서운 엄포(?) 때문이었을까요? 누나들은 무슨 핑계로도 주말에 외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외출을 하더라도 교회 예배가 끝나는 오후에서야 가능했고, 그것도 만나는 사람에게 대해 확답을 해주고 나서야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불행하

하는 곳은 개신교. 그 이유는 종교행사를 일주일에 두 번했고 갈 때마다 훈련병들이 좋아하는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천주교(성당)는 일주일 한 번 행사에 한 번씩 주었고, 불교(절)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서인지 처음 참석인원의 절반이 두 번째 때는 안 가게 되어 그곳 법사님을 놀라게 해 인솔조교에게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개신교 참석인원은 갈수록 줄어들었으나 불교참석인원은 두 번째 인원 그대로 끝까지 유지가 되어 결국은 평생 간직하게 될 염주와 법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 어머니 뜻 따라 귀의했지만 주말엔 '허전'

## 약한 몸과 마음으로 군 입대해 병원 신세

## 매일 108배 3회씩... 목표했던 만배 달성

이 있었겠지만, 바깥으로 나타나는 그 일 치된 믿음에 대한 기도 때문인지 나는 한번에 대학시험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큰누나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종원아! 그 당시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운 줄, 넌 모를 거야. 엄마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바로 체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형식적인 수준의 불교에 대한 나의 믿음이 군입대를 하면서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즉, 군대시절부터 마음의 한 복판에 불교가 조금씩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처음 훈련소에서의 종교행사로써 개신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나누어 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참석

하고 훈련소를 떠나 2년간의 군생활을 하게 될 부대로 가서는 훈련소 생활과는 달리 동병상련을 하게 될 동기가 없고 힘든 생활로 인해 체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불교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된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은 바로 체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입대 전까지 나는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아 체력이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보호를 해 주던 부모님의 그늘은 너무 커서 군입대를 한 나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딱딱한 군화와 군복을 입고 엄격한 군대생활을 했으니 심신은 그야말

로 괴로웠습니.

탈영도 몇 번씩이나 생각 했었지요. 그렇게 단련되지 않은 몸 중에서 특히 발이 문제였습니다. 몸을 지탱하는 것이 역부족이 었는지, 서있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통증이 생겼습니. 결국 군대생활 1년 만에 서울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생활은 지친 심신과 불교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는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나는 육체적으로 체력단련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정신적으로도 하나의 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병원 안에 자리 잡은 의왕사(醫王寺)였습니.

의왕사를 처음 찾았을 때, 병원 내에서도 산에 위치해 조용한 그 곳이 내 마음의 안정을 주었습니다. 스스럼없이 나는 부처님을 매일 찾아뵙기 위해 이곳에 오게 되었지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만 배를 하기 위해서였지요.

어느 날, 불교서적을 읽다가 만 배를 하면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긴다는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8배씩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부처님을 찾아 의왕사를 오게 되었고, 만 배를 다하기 전 부처님의 말씀을 만나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마음 자체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절을 찾으며 처음에는 나 하나만의 몸을 위해 절을 했으나, 나중에는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다기 위한 후 나를 마지막에 찾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어머니도 절에 가서서 이렇게 하시리라 생각이 들더군요.

만 배, 처음 이 단어는 내게 아득히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성철 스님이 당신을 찾아온 사람에게 3천배를 하게 한 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그 많은 수의 절이 몸으로 다가오지 않았으니 만 배는 더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 배를 이심일에 끝낸다는 생각은 없었고 108배에 의미를 두며 하나씩 한다는 마음, 꼭 만 배를 채우겠다는 생각보다는 내 자신을 비우고 생활 속의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 해나갔습니.

절을 한 지 며칠이 지나자 몸은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으며 어둠의 고통에서 오는 침울한 얼굴에 미소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 배를 다한 후에는 법사님과 군종법우이 좋아 의왕사를 계속 찾게 되었습니다. (계속)



그림 · 문병성

###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수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술하게 되어 보내드립니다. 귀중한 수행기록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수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수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인편(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수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 김문기 박사의

##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이시린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현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추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교재주문: 수정기공리닉 (일금 30,000원) ●온라인 번호: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김문기)  
 ●속성강의 접수: 1개월 과정 (매일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합, 선착순 8명)  
 ●참고: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리닉.COM ●장소: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 탈 종 공 고

사찰명	주지(속명)	소재지
관음사	청담(권윤기)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
삼백육십오일사	무산(문성열)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용수사	혜오(이상범)	울산시 북구 창평동
원각사	경산(순수찬)	울산시 동구 화정동
해동사	보성(신현순)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구인사	법명(윤인식)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공건정리
수연사	보덕(김연행)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
수왕사	관전(김성희)	울산시 중구 성안동
불광사	보혜(김옥자)	서울 금천구 시흥5동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6. 4. 10.

## 대한불교 총화종 총무원장 법하

### 배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이고 편안인 잠자리

## 상쾌한속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죽여가는 것도 살리는 은행석**

북한에서는 은행석은 죽여가는 것도 살리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붓어를 넣으면 붓어는 배를 뒤집고 활짝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붓어는 쉰성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 분재 등 죽여가는 것도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의 빛/생명의 기**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며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식이 많아요.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손발이 자주 붓거나 저린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목걸이,팔찌: 머리를 맑게 함, 손발저림,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 氣를 고루 전달 기력회복, 심장박동이 원활하여 마음을 안정 시킴, 신진대사촉진, 피가 맑게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

은행석 108염주, 손목압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금강각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던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 서원불교 ☎ 043-647-2378, 011-467-1472